

집중탐구



미리보는 2020년 오리 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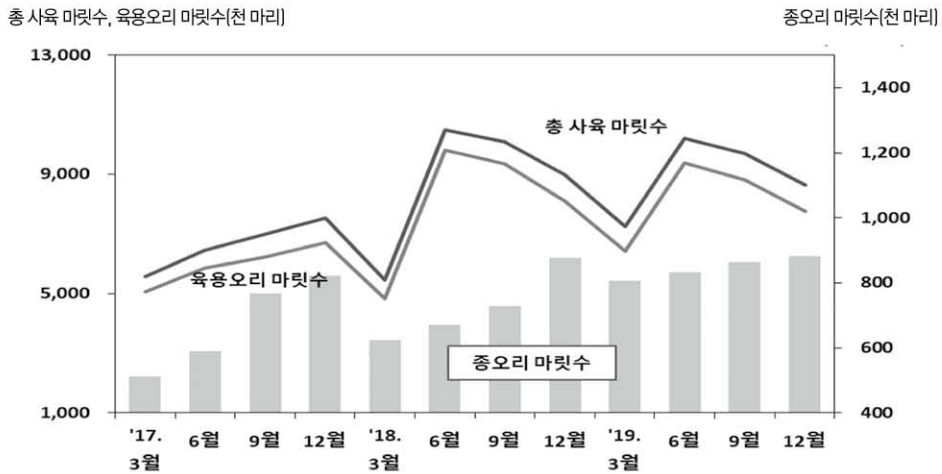
- ◆ 2020년 오리 사육 마릿수는 종오리가 많아 2019년보다 12.0% 증가한 1,016만 마리로 전망된다.
- ◆ 2020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오리 사육마릿수가 늘어 2019년보다 9.9% 증가한 12만 8,446톤으로 예상된다.
- ◆ 2020년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9년보다 4.6% 하락한 4,939원(생체 3.5kg)으로 전망된다.

1.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동향

1. 사육동향

- 2019년 평균 오리 사육 마릿수는 종오리 입식 증가로 2018년(876만 마리)보다 2.1% 늘어난 894만 7천 마리였다.
 - 2019년 종오리는 84만 6천 마리, 육용오리는 810만 2천 마리로 전년보다 각각 16.7%, 0.8% 증가하였다.
- 2019년 3월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724만 3천 마리로 사육제한 시행(2018년 11월~2019년 2월) 전인 2018년 9월(1,008만 6천 마리)보다 28.2% 감소하였다. 그러나 3월 이후 사육제한 해제로 사육 마릿수가 증가세로 전환되어 6월에는 938만 3천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 2019년 3월 오리 사육 가구수는 사육제한 실시로 449가구까지 줄었으나, 6월에는 606가구까지 증가하였다.
 - 2019년 평균 오리 사육 가구수는 533가구로 2018년보다 2.5% 증가하였으나, 가구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1만 6천 마리로 전년과 비슷하였다.

[오리 사육 마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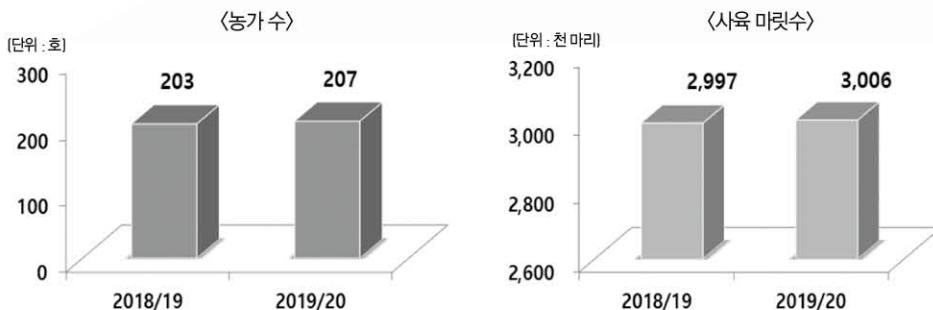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오리 사육제한이 공급에 미친 영향

- 오리 사육제한은 2017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 HP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8/19년 오리 사육제한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 개 월간 실시되었다.
- 정부는 2019/20년에도 전년과 같은 기간(2019년 11월~2020년 2월)에 오리 사육제한을 시행 하고 있다.

[오리 사육제한 추진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18/19년 사육제한 시행 여부에 따른 월별 도입 마릿수 추정치와 실제치는 <표.1> 과 같다.
- 사육제한 시행으로 인한 2018년 12월~2019년 4월 도입 마릿수는 총 2,553만 9천

마리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2,990만 9천 마리)보다 약 437만 마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사육제한 시행 여부에 따른 도합 마릿수 추정치와 실제치

(단위 : 천마리)

도합 마릿수	2018년		2019년			합계
	12월	1월	2월	3월	4월	
추정치	6,602	6,503	5,221	5,846	5,737	29,909
실제치	5,997	5,549	4,178	4,558	5,257	25,539
증감률(%)	-9.2	-14.7	-20.0	-22.0	-8.4	-14.6

주: 월별 도합 마릿수는 산란 종오리의 주령별 산란율 등을 통해 추정된 월별 육용오리 병아리 입식 마릿수를 활용한 것임.
 자료: 농업관측본부(추정치), 농림축산검역본부(실제치)

2. 오리고기 수급 동향

- 2019년 육용오리 입식 마릿수는 6,890만 마리로 2018년(6,789만 마리)보다 1.5% 증가하였으며, 총 도합 마릿수 또한 6,962만 마리로 2018년(6,748만 마리) 보다 3.2% 증가하였다. 오리고기 생산량은 11만 6,891톤으로 2018년(11만 3,695톤)보다 약 3천 톤 증가하였다.
- 1인당 소비가능량도 오리고기 공급량 증가로 2018년보다 0.1kg 증가한 2.4kg이 었다.

<표. 2> 오리고기 수급 동향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p)
공급(톤)	생산	106,450	118,328	118,898	89,417	113,695	116,891
	수입	2,921	3,122	3,379	3,461	4,075	5,770
	계	109,371	121,450	122,277	92,878	117,770	122,661
1인당 소비가능량(kg)		2.2	2.4	2.	1.8	2.3	2.4

주: 1) 수입은 정육·자육, 열처리의 합임.
 2) 2019년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자료: 한국오리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오리 산지가격 동향

- 2019년 오리 산지가격은 공급량(도합 마릿수+이월 냉동재고량) 증가로 2018년 (6,937원)보다 25.4% 하락한 생체 3.5kg당 5,177원이었다.
- 3~4월 평균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 사육제한 대비로 2018년 하반기부터 도합 마릿수와 오리고기 냉동재고량이 늘어 전년보다 45.6% 하락한 5,700원이었다.

- 7~8월 가격도 복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상황 개선으로 생산량이 늘어 전년보다 낮았다.

〈표. 3〉 오리고기 냉동재고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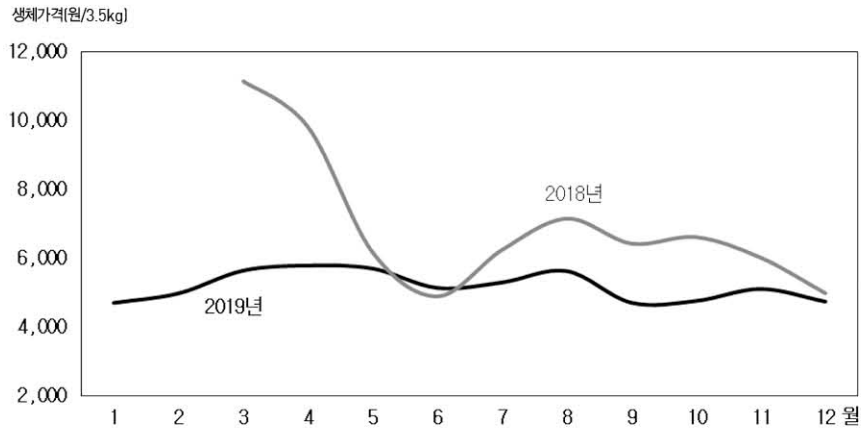
(단위:천마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493	437	35	29	379	721	784	989	1,533	2,938	3,589	4,000
2019년	5,482	5,445	5,406	4,775	4,313	5,072	4,855	4,776	5,163	5,253	4,928	4,917

주: 냉동재고량 자료는 일부 계열업체의 자료가 빠진 상태로, 전체 물량의 70~80% 수준으로 추정됨.
재고량은 매월 마지막 주에 조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한국오리협회

[오리 산지가격 동향]



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원/kg)을 발표하고 있으며, 위 가격은 오리 평균 생체중량인 3.5kg에 맞춰 환산한 것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4. 오리고기 소비 패턴

○ 소비자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2019년에 오리고기를 소비하는 빈도는 ‘1~4회’, ‘5~8회’ 순으로 많았다. 특히, 오리고기를 1년 동안 전혀 먹지 않는 소비자도 상당수로 가정 내와 외식 소비에서 모두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간 오리고기 소비 빈도

(단위: 명, %)

	가정 내 소비	외식(배달 포함) 소비
0회	80 (12.8)	79 (12.8)
1~4 회	362 (58.1)	433 (70.1)
5~8 회	114 (18.3)	79 (12.8)
9~12 회	35 (5.6)	13 (2.1)
12회 이상	32 (5.1)	14 (2.3)
합계	623 (100.0)	618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조사 결과

○ 가정 내에서 주로 먹는 오리고기 메뉴는 훈제오리(41.5%), 로스 등 오리구이 (31.8%), 오리주물럭(14.8%) 순으로 나타났으나, 외식용 메뉴는 오리구이 (30.8%), 훈제오리 (28.3%), 오리주물럭(17.7%) 순으로 많았다. 2019년에 주로 먹는 오리고기 메뉴는 가정 내에서도 식당에서 전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5〉 주로 먹는 오리고기 메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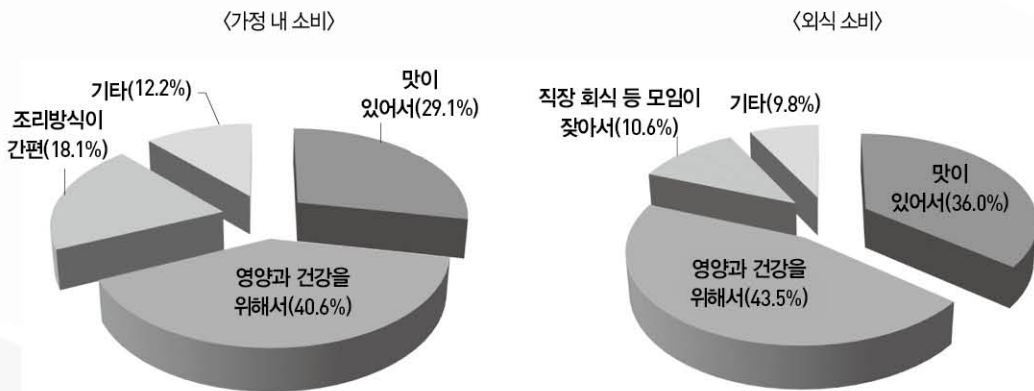
	가정 내 소비	외식(배달 포함) 소비
훈제오리	41.5	28.3
오리구이(로스 등)	31.8	30.8
탕류(오리탕 등)	3.5	6.6
오리백숙	6.8	15.5
오리주물럭	14.8	17.7
기타	1.6	1.0
합계	100.0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소비자들이 오리고기를 먹는 주된 이유는 ‘영양과 건강을 위해’, ‘맛이 있어서’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들 다수는 오리고기를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가정 내에서는 조리 방식이 간편하여(18.1%), 외식으로는 직장 회식 등 모임이 잦아서(10.6%) 소비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오리고기 소비 이유]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오리고기를 소비할 때 불편한 사항으로 가정 내에서는 ‘조리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관련 정보가 제한적(61.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편 외식 소비에서는 ‘다른 육류보다 메뉴가 제한적임(70.1%)’이라는 응답률이 전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표. 6〉 오리고기 소비 시 불편사항

(단위: 명, %)

	가정 내 소비		외식(배달 포함) 소비	
	2018	2019	2018	2019
판매되는 오리고기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음 (너무 크거나 작음)	68 (16.0)	102 (19.2)	31 (7.0)	79 (12.8)
조리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관련 정보가 제한적임	266 (62.6)	327 (61.5)	-	-
다른 육류에 비해 메뉴가 제한적임	-	-	179 (40.5)	433 (70.1)
오리가격이 다른 육류에 비해 비쌌	58 (13.6)	79 (14.8)	103 (23.3)	79 (12.8)
오리고기 구입이 어려움	18 (4.2)	24 (4.5)	-	-
오리고기 음식점이 주변에 많지 않음	-	-	125 (28.3)	13 (2.1)
기타	15 (3.5)	0 (0.0)	4 (0.9)	14 (2.3)
합계	425 (100.0)	532 (100.0)	442 (100.0)	618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

- 오리고기 소비 의향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2020년에 오리고기 소비를 2019년보다 줄이겠다고 응답하였다. 예상 소비량은 2019년을 100.0으로 볼 때 2020년에는 98.2로 나타났다.

-오리고기 소비를 줄이려는 이유는 ‘조리 방식이 어려워(26.6%)’, ‘오리고기 판매 마켓이나 음식점이 주변에 많지 않아(18.3%)’, ‘가격이 비싸(17.0%)’ 순으로 많았으며, ‘맛이 없어서(12.8%)’라는 이유도 많았다.

- 오리고기는 국내산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 육류와 달리 맛이 없어서 소비를 줄인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오리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소비자 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뉴 개발과 조리법 등 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수급 전망

- 2020년 종오리 사육 마릿수는 93만 2천 마리로 2019년 84만 6천 마리보다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종오리 마릿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2019년 종오리 입식 마릿수가 전년보다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다.

〈표.7〉 종오리 입식 마릿수 추이

[단위: 천마리,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8년	10.5	14.7	16.8	23.0	12.6	12.6	42.5	43.4	44.7	70.0	39.1	37.8	367.7
2019년	29.9	27.8	43.2	54.6	55.4	51.7	60.5	41.4	50.8	46.9	23.1	13.1	498.5
평년	12.8	26.3	31.7	55.5	66.3	50.7	50.2	56.0	45.4	44.0	35.7	28.6	503.2
19/18	184.8	89.3	157.0	137.5	339.9	311.9	42.4	-4.5	13.5	-33.0	-41.0	-65.4	35.6
19/평년	134.1	5.9	36.1	-1.6	-16.4	2.1	20.4	-26.0	11.8	6.6	-35.4	-54.2	-0.9

자료: 한국오리협회

- 육용오리 사육 마릿수는 사육제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오리가 많아 2019년보다 13.8% 증가한 922만 4천 마리로 전망되며, 2020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늘 것으로 추정된다.
 - 2019년 12월 말 기준 전체 산란 종오리는 전년보다 13.9% 많았으며, 경제주령 범위 내의 산란오리(25~78주령)는 42.4% 많았다(한국오리협회).
- 육용오리 병아리 생산잠재력 추정 결과, 2020년 1~6월 잠재력 지수는 2019년 동기 간보다 25.4%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8〉 육용오리 병아리 생산잠재력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0년	108.5	116.3	123.3	132.0	142.7	146.8
2019년	100.0	97.4	96.0	100.0	109.0	114.9
증감률(%)	8.5	18.9	27.3	32.0	33.7	31.9

주: 잠재력 지수는 산란 종오리 사육 마릿수와 주령별 산란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월별 육용오리 병아리 입 식 마릿수를 지수로 변환한 것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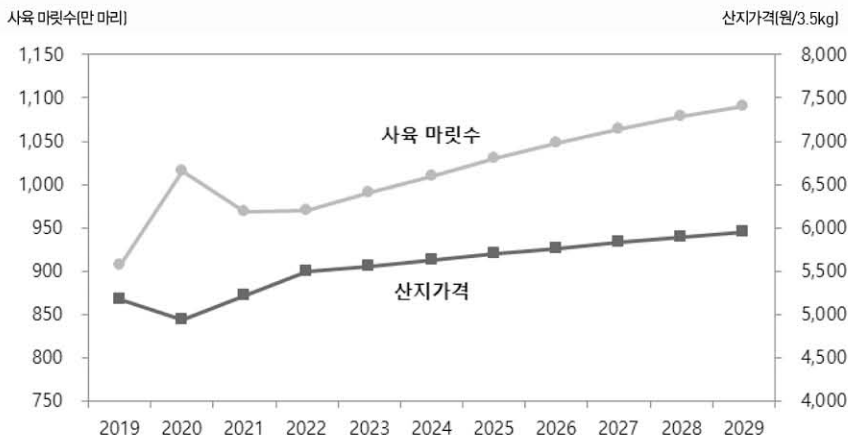
- 2020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오리 사육 마릿수가 늘어 2019년보다 9.9% 증가한 12만 8,446톤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0년 종오리 입식은 오리고기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감소하여 2021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 오리고기 생산량은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 12만 9,085톤, 2029년에는 13만 9,200톤으로 전망된다.
- 2020년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9년보다 4.6% 하락한 4,939원 (생체 3.5kg)으로 전망되며, 이후에도 오리고기 소비가 범국민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오리 산지가격은 2024년에는 5,629원, 2029년에는 5,952원으로 전망된다.

〈표.9〉 오리고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19	전망		
			2020	2024	2029
사육 마릿수	만 마리	907	1,016	1,010	1,091
생산	톤	116,891	128,446	129,085	139,200
수입	톤	5,840	5,176	5,965	6,134
1인당 소비가능량	kg	2.4	2.6	2.6	2.7
산지가격	원/생체3.5kg	5,177	4,939	5,629	5,952

주: 수입량은 정육·지육과 열처리 제품의 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9)

[오리고기 수급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2019)